

[인도남아시아 비즈니스 정보]

방글라데시 의류 산업, 2021년 對인도 수출 20억 달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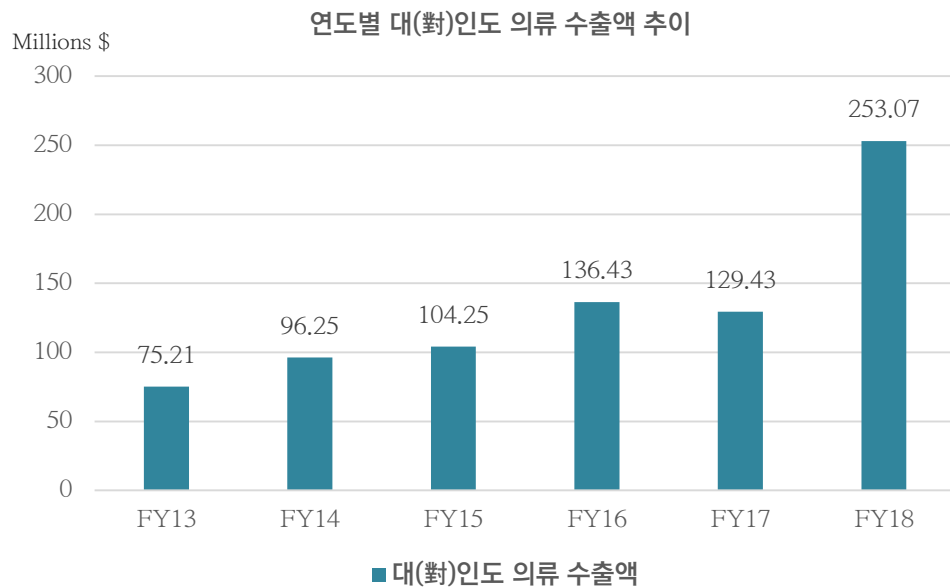


인도가 방글라데시의 주요 의류 수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면세 및 가격 경쟁력으로 의류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방글라데시의 대(對)인도 의류 수출액은 2021년까지 20억 달러(한화 약 2조 2,47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티푸 문시(Tipu Munshi) 상무부 장관은 “인도와의 상품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섯 개의 Border Haats(인도와 방글라데시 국경 부근 전통시장)를 새로 개장할 예정이다, 상인간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인도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 간의 의류제품 교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나,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정책 및 인프라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글라데시, 대(對)인도 의류 수출 급성장

2018년 인도는 방글라데시의 세 번째로 큰 의류 수입국으로, 약 2억 7,000만 달러(한화 약 3,021억 300만 원)의 제품 수입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 약 1억 1100만 달러(한화 약 1,241억 원)에서 143% 성장한 수치로, 인도는 방글라데시의 주요 의류 수출국으로 급성장했다. 2011년 인도의 방글라데시 수입품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이 철폐된 후 방글라데시의 대(對)인도 수출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방글라데시 티푸 문시 상무부 장관과 인도의 아다시 스와이카(Adarsh Swaika) 고등 판무관 대행은 최근 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양국 간 의류 교역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지난 2018년에 방글라데시 수출진흥청(EPB: Export Promotion Bureau)이 발표한 데이터 역시 향후 방글라데시의 높은 대(對)인도 의류 수출 성장 잠재력을 보여준다. 방글라데시 현지 매체인 더데일리스타(The Daily Star)가 인용한 EPB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2018년 5월 대(對)인도 수출액은 약 2억 5,300만 달러(한화 약 2,830억 원)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 대비 약 1억 2,400만 달러(한화 약 1,387억 원) 상승한 수치로, 과거 회계연도들을 기준으로 인도에 대한 방글라데시의 의류 수출이 대폭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the Daily Star, 2018)

방글라데시, 의류 수출 110억 달러 성장 전망

방글라데시 섬유황마부(Ministry of Textile and Jute)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회계연도 2020~2021 의류 부문 수출액은 약 110억 달러(한화 약 1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방글라데시의 의류 부문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적절한 정책 지원 부재, 인프라 개발 부족, 열악한 항구 시설, 전문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해당 산업의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 높은 의류 산업 성장 및 수출 증대를 위해 정책 및 인프라 개선 등이 요구된다.

자료정리: EMERiCs, 자료감수: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출처

- Textile Today, Apparel shipments to India will cross \$2 billion, 2019.01.30
- The Daily Star, RMG exports to India can hit \$2b in 2yrs, 2019.01.28
- Textile Today, Bangladesh's apparel export trend of 2018?, 2019.01.26
- The Daily Star, India brings hope to garment exporters, 2018.06.14